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관련 온도차

안철수 "다당제 잔혹사…외연확대 없으면 소멸"
김동철 "모든 일엔 때가 있어…신뢰구축이 우선"
이용호 "통합이 분열 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양당 정책연대의 과제와 향후 발전방안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유승민 대표, 안 대표, 이언주 의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전제로 진행돼온 국민통합포럼에서 7일 안철수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온도차를 드러내 주목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해 "외연확대 없이는 정당은 소멸할 수 밖에 없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보면 '다당제 잔혹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3당, 4당은 거의 예외 없이 대선이나 총선 직후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특단의 대책, 그리고 노력 없이는 존속이 굉장히 어려운 게 3당, 4당의 운명"이라며 "소중한 3당, 4당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는 주축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참석한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용호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지금은 통합 시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양당이 정책연대를 통해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라며 "분명히 양당 간 통합의 때는 온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일을 통해 그리고 양당 간 신뢰 구축에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양당 간 통합의 때는 온다"고 했다. 당장은 통합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통합의 때가 오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만의 통합이 아니라 아마 통합을 바라는 또 다른 수많은 정치세력들도 함께하는 큰 대통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의 범위를 넓히되 바른정당과의 1대1 통합 논의와는 거리를 두는 발언으로 읽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통합의) 시기 약속이 문제가 아니고 신뢰가 먼저"라며 "신뢰가 구축이 안 됐는데 시기에 대해서 얘기할 순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당내에 화합, 결속도 있어야 하고 바른정당과의 신뢰도 구축돼야 하고, 그랬을 때 통합이 이뤄져도 분열과 파열음 없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도 "사실 뭐 통합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통합이 또 다른 분열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 통합 논의를 둘러싸고 심화되는 당내 갈등을 지적했다. 그는 "분열이 없는 통합, 또 좋은 통합을 만들기 위해 좀 더 인내하고 지혜를 갖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와 함께 포럼에 참석했던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 원내지도부의 이같은 발언 직후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이어지는데도 자리를 떴다. 사전에 '끝까지 발제를 못 들어도 양해해 달라'고 말해둔 상황이었지만, 당시는 발제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때였다.

김세연 권한대행은 유 대표가 자리를 뜬 뒤 "양당 간 통합 논의도 있었고 또 선거연대, 정책연대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신뢰부터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이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다"며 "예산안 처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아쉬운 대목들이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 현재는 정책연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 아닌가"라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생각들과 공통점들, 차이점들을 본격적으로 맞춰보는 시기"라고만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내주께 바른정당 통합론을 두고 한차례 더 내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또 토론을 할 거다. 장시간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의논해 보겠다"고 답했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찬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11~23일 임시국회 개회 합의

선거구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논의

여야3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7일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선 개헌, 선거구제 논의를 비롯해 여당이 중점 과제로 꼽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이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개헌,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거론된 점을 들며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다 공수처법 등을 두고도 여야 대립이 첨예한 만큼 임시국회 회기 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좌파 포퓰리즘 예산 못 막아 사죄드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을 '좌파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 뒤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했다.

홍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주의식 좌파 포퓰리즘 예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당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좌파광풍시대를 종지부 찍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새해 예산안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당 내부 혁신을 통해 새해부터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지원 "安은 YS 아냐…탁월한 정치력 · 리더십 없어"

"안되는 통합으로 가니까 지지율 자꾸 떨어지는 것"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7일 "안철수는 김영삼이 아니다. 그런 탁월한 정치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대표가) 제2의 YS의 길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굴로 YS가 들어가서 YS는 호랑이가 됐잖나. 그런데 안 대표는 호랑이 굴로 간다고 말은 하는데 쥐구멍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완충지역으로 바른정당과 (통합)하고 다음에 한국당 세력들과 통합해서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돼 집권의 길로 가려는 것 아니냐"며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은 원칙이니까 그 원칙을 지키면서 타협과 통합, 이런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낮은 것에 관한 질문에는 "안 되는 통합으로 가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이라며 "(안 대표는) 통합하면 2등 정당으로 된다(고 하지만), 통합하면 꼴찌 정당 된다"고 단언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 관해선 "당 대표면 예산의 투쟁을 위해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국회는 비워 놨다.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지만 그렇지 않다"며 "원외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산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당대표가 지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보여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된다"며 "그렇다면 언론을 통해 지휘하는 모습, 심각한 모습 같은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 다니면서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했다), 그 통합의 살 길이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정우택, 당내 예산안 통과 비판에 "원내대표 선거 강경론 득세위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당내 비판에 대해 "제가 보기에 곧 있을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내에서 예산안 통과와 관련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따라서 제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제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 나름대로 주장을 쭉 해왔고 서로 합의를 못 보는건 못 보는대로 의원총회에 보고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 원내선거가 있다보니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괘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가 끝까지 했어도 문재인 정부가 정책기조로 정한 공무원 문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각 당 입장에서 보면 협상에 100%만족이 어디 있겠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중 법인세와 공무원 증액을 제외한 6개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15일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는 정 원내대표는 "어려웠던 당을 이렇게 살려내고 힘을 보탰던 것에 대해 저는 정치생활을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까한다"고 소회를 밝혔다.